

엘에이지방회 남 감찰회 신년목회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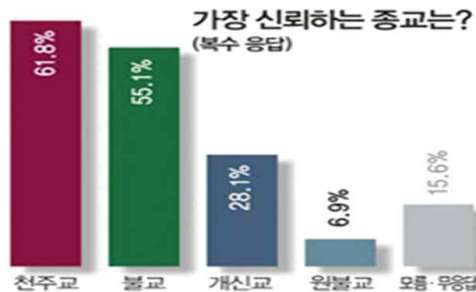
12.6.2012 시 푸드 베가스 뷔페 강사: 김희창 목사

주제: 요한복음을 신년 목회에 적용하기

I. 들어가면서:

우리들에게 왜 사도요한의 핏물복음이 필요한가? (John 19:34)
Why Does we need the Gospel of the Blood and the Water of Apostle John
-Critical Interpretation-

1. 이단인 영지주의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었다 :
예주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한 자들.
2. 그리고
교회 안의 지도자들, 섬기는 자들의 신앙 양태가 세속적으로 되었다.
3. 오늘날에도?
 - a. 무엇인가?
기독교 이단 문제: JMS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 득세
지도자 문제: 성직자의 물질탐욕, 호화생활, 음란사건, 세습, 성직매매 등
 - b. 그 영향성은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개신교 신뢰도- 20대(27.7%), 30대(26.6%)?
불교 신뢰도- 20대 (58%) -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천주교 신뢰도-서울(67.4%), 경기(66.6%),
연령별- 40대(63.8%)와 50대(67%)¹⁾



MBC 흠뻑 쏘 사이의 쇼 호루스의 눈 군중 속에 이단 일루미나트 등장
지금쯤 참 기독교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세상이다.

1) '시/사인'(2012.11.8.)

II. 사도요한은 왜 핏물복음을 써야만 하였는가? John 19:34 Why Did Apostle John Have to Write the Gospel of the Blood and the Water? -Critical Interpretation-

교회역사 50여년 만에 이단문제 말고 실제로 신자와 사역자들의 신앙형태가 주님께서 보실 때에 부정적이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가르쳐주시는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겨 사역자들이 묵회에 적용하고 생활에서 개선하고 참 신자들이 되는 길을 보여주었다.

요한복음의 장(Chapter)별 계시적 의미와 문화적 적용한 선교적 설교: The Missional Preaching of the Meaning in Revelation and the Cultural Applying in Chapters of John's Gospel

Ch 1 -성육신 정신 ?

The incarnational mind ?

예수님의 성육신 선포는 당대이나 지금이나 혁명적인 선포이다.
예수님은 당대의 언어 문화 규례 등에 겸손한 배움 행동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OMS의 '한국인을 선교현장에 앞세워 선교한 동역 리더십'에서 나타난 모습 성육신적 접근을 볼 수 있다. - 신학교육 통해 : OMS' Partner Leadership that Koreans was in Front of Mission Field: Through Theological Education :
-개화기에 일본 유학파 배치 -OMS 동경성서학원: Tokyo Bible Training Institute- 졸업자들 사역
한국 선교- 전도자 Bin Jung 정 빈, Sang Joon Kim김상준 앞세운 선교지 중심 리더십 상황화 적용-1907.5.30.- D 1152)
-여기에 Jang Ha Lee 이장하 Myung Hun Lee 이명헌 Myung Chik Lee 이명직 Hyun Myung Park 박현명 등 엘리트 한국인 유학파교역자들 - 전진배치

개척자 찰스 카우만-
'하나님의 성경학교' (God's Bible School)
창립자윌리엄 테일러(William Taylor) 영향: Affected the mission field people centered mission policy of OMS
"복음전도를 위하여 본토인 전도자를 양성한다."³⁾

"선교현장, 토착인 양육, 토착교회 육성이라는 선교현장 중심의 선교활동은 그 당시 반란이 었다."⁴⁾

중국 배경 '대지'의 펄벅은 기독교 떠나고 그 엄마 선교사 와이프인 엄마는 '유배살이' 생각.⁵⁾

향수병 앓으며 '유배살이' 한 어머니
펄, 중국 알린 문화 선교사였지만
사후에야 인민의 친구로 인정받아

한 눈물 때문에 연주를 그만두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고했다.

압솔름과 일곱 자녀를 낳았으나 네 명의 아이를 저세상에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어머니다. 그래서 제발 이 아이만은 미국에서 낳자고 해서 잠시 원정 출산(?)한 아이가 펄 벅. 캐리는 미국에서 살자고 간청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이 집은 여생을 간혀서 보내야 했던 유배지였다고 펄 벅은 엄마의 일대기를 다룬 유배에서 썼다.

같은 집에서 다른 세계를 살았던 압솔름 부부의 차이가 이 공간 배치에서 한눈에 들어온다. 남편은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일에 무신경했고, 남편과 함께 선교사로 온 부인 캐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심을 잃고 세속적인 것, 미국의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녀는 오르간을 치면서 향수병을 달랬는데 막내딸 그레이스는 피터 콘이

2) D는 김희창의 선교학박사(Doctor of Missiology) 논문 페이지이다: **A STUDY OF THE STRATEGIC MISSION POLICY FOR THE OVERSEAS MISSION OF KEHC: IN RELATIONSHIP TO CONTEXTUALIZATION OF OMS MISSION LEADERSHIP**,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 2012)

3) 박명수, 초기 한국성결교회사, 181.

4) 박영환, 한국교회 교단별 선교정책과 전략, 41~42.

5) "홍은택의 중국만리장성 - 쑤성 전장의 펄 벅 옛집," 미주 중앙일보 주간중앙, 7. 7. 2012. 33.

Monochronic-Polychronic Scale
Charles Phipps J.D.

Please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using this scale:

Strongly agree(SA) Agree(A) Neutral(N) Disagree(D) Strongly disagree(SD)

1. I usually feel frustrated after I choose to do a number of tasks when I could have chosen to do one at a time.	SA	A	N	D	SD
*2. When I talk with my friends in a group setting, I feel comfortable trying to hold two or three conversations at a time.	SA	A	N	D	SD
*3. When I work on a project around the house, it doesn't bother me to stop in the middle of one job to pick up on another job that needs to be done.	SA	A	N	D	SD
4. I like to finish one task before going on to another task.	SA	A	N	D	SD
*5. At work or school, it wouldn't bother me to meet at the same time with several different people who all had different matters to discuss.	SA	A	N	D	SD
6. I tend to concentrate on one idea before moving on to another task.	SA	A	N	D	SD
7. The easiest way for me to function is to organize my day to day activities with a schedule.	SA	A	N	D	SD
*8. If I were a teacher and had several students wishing to talk with me about assigned homework, I would meet with the whole group rather than one student at a time.	SA	A	N	D	SD
*9. I like doing several tasks at one time.	SA	A	N	D	SD
10. I am frustrated when I have to start on a task without first finishing a previous one.	SA	A	N	D	SD
*11. In trying to solve problems, I find it stimulating to think about several different problems at the same time.	SA	A	N	D	SD
12. I am mildly irritated when someone in a meeting wants to bring up a personal topic that is unrelated to the purpose of the meeting.	SA	A	N	D	SD
13. In school I prefer studying one subject to completion before going on to the next subject.	SA	A	N	D	SD
*14. I'm hesitant to focus my attention on only one thing, because I may miss something equally important.	SA	A	N	D	SD
15. I usu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only one task at a time to finish it.	SA	A	N	D	SD

이것은 상대방에게로 접근할 수 있는 성육신적인 생활자세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다 체크한 후에

SA는 1점부터 SD는 5점으로 체크하고,

*표가 있는 것은 맨 앞에가 5점이고 맨 우측이 1점이 된다.

자신의 문화 코드가 단선문화시간적인가? 복합문화시간적인가?

상대방은 또?

오직 하나의 것을 해결하여야 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 복잡하게 생각되면 단선시간적인 문화 코드를 소유한 자이다.

이것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체크 리스트이다.

Ch 2 -돌항아리 교회에 대한 이해 ?

The Understanding on Jar Church ?

㉠ 갈릴리 가나 잔치 집에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첫 기적, 표적을 행하셨다.

교회는 항아리 효과가 있다??? : The Effectiveness of the Jar Church

변화되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돌항아리 사건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1. 생명성이다.

-숨 쉬고 죽지 않게 한다.-옹기는 1,200°C의 고온에서 생성된 수없이 많은 미세한 구멍들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이기도 하고 내부의 습기 등을 선택적으로 내보낸다. 물 자체가 숨을 쉬며-죽지 않게 한다.

2. 해독성이다.

-회개작용이다.-정화 작용이다.-물도 항아리에 받아두면 하루정도 지나면 물이 자연 정화가 된다. 독을 빨아들이거나 정제 하는 방부 역할-중금속 해독 작용한다.

3. 정화성이다.

-싱싱함을 유지한다.-과일을 넣어 두어도 본래의 맛이 살아나고 싱싱함이 오래도록 유지된다. 정화, 성결의 역사가 있다.

4. 향기성이다.

-변화 작용이다.-몸에 좋은 유산균 활동 촉진-발효식품의 향을 오랫동안 유지시키는 항아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김치를 만들어 준다. 김치는 물론 고추장, 된장, 간장 맛 유지하게 한다.

4. 본향성이다.

-향수를 자극하는 독특한 맛이 있다. 본래 나온 곳 고향, 하늘나라를 생각나게 한다.

5. 영향성이다.

-자연 환원성인 토화 현상을 일으켜 환경보호에 좋다.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다.

그 항아리 안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Ch 3 -거듭나지 않고 사역 ?

The Working without the Regeneration ?

니고데모는 자신이 율법에 완전하여 사역도 완전하다고 하며 그것이 제일인양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 그 후 그는 하늘나라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 가지라도 처리하는 목숨을 내 놓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거듭난 자로 사역하기:

1946년 10월-헤인스 선교사가 한국 책임자로서: 한국성결교회 지도자들 1945년 9월 22일 선교사역 재개 청원(Requested to OMS)으로 헤인스 부임-

“자신들의 위치를 지도자나 ‘감독자’가 아니라 ‘조언자’와 ‘동역자’로 자리 매김”

: OMS, missionary Haines came to Korea as a director in October 1946

“not as leaders or directors, positioning as an advisor or co-worker.”⁶⁾

Ch 4 -예수를 메시아로 믿음 ?

The Believing in Jesus as the Messiah ?

예수를 믿는다고 수만 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메시아로서 믿고 있는지?

우물 샘터 교회에서 일이 일어났다.

1) 샘물터는 정기적으로 생명의 물을 섭취하기 위하여 물 길러 오는 장소이다.

2) 샘물터는 사람들이 등목을 하며 땀을 씻는 장소이다.

3) 샘물터는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소이다.

4) 샘물터는 필연적인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소식 정보 교환이 된 장소이다.

5) 중요한 것은 샘물 자체인 것이다.

샘물은 땅 속에서 솟구쳐 나와 모든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것이다.

6) KEHC, 선교백서, 35.

- 6) 더 중요한 것은 샘물은 모든 생명체를 살려내는 생명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7) 그 영향력이 대단하여 그 주위를 생명력으로 가득 채우게 한다.

샘터에서 주님을 만난

‘십자군전도대 역사 속의 동역 리더십’에서 그들의 메시아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Partner Leadership in the History of ECCE

: Every Creature Crusade Evangelism /1950:

Every Community for Christ /2004

a. OMS 1930년대- 레티(Planter Missionary Lettie) 선교사 시작

: Organized 4 Evangelism Band

b. OMS 1953년 선교사들 다시 입국(After Reentry) 후 재개- KEHC위한 4개 전도대 조직

c. 1973년 9월 29일-스탠리 템(W. Stanly Tem) - 선교헌금 \$600,000,000.00

-KEHC의 교회개척과 전도사역: Ch Planting & Evangelism Ministry for KEHC

-십자군전도대(ECCE) 부활(Reviving)

D116

Ch 5 -38년간 남을 탓하면서 자립하지 못함 ?

The Blame without the Self-supporting for 38 Years?

치료수 되시는 베데스다 못가의 물에서 경험하듯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자는 정말로 뜨거운 온천수와 같은 그 뜨거운 핏물로 다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진정한 베데스다 못가 되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인도로 치유를 받을 수 있음을 계시해 준다.

북침례교단 소속 신자이었던 미국의 석유황제로 대재벌 록펠러가 어렸을 때였다.

한번은 착한 일을 했더니 사탕을 파는 아저씨가 “애야, 여기서 사탕 한 움큼 집어가라.” 그랬다고 한다. 그러자 어린 록펠러는 “아닙니다. 저는 됐습니다. 아저씨가 집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감동을 해서 “너같이 욕심 없는 애가 다 있구나.” 하면서 사탕을 한 움큼 집어주었다. 옆에서 지켜 본 어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바르고 기특한 말을 하니?” 하며 칭찬하니 록펠러가 말하기를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다.

Ch 6 - '그러나'라는 토를 달며 '예' 없이 사역 ?

Worked with 'but' the Term without 'Yes' in the Church ?

교회가 세상인들이 볼 때에는 아주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바구니일 것이다. 바구니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아주 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적은 5명2어를 담는 바구니 역할이 있다? 이것을 안드레는 몰랐었다.

첫째,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담아놓아 고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분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공급되는 곳으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계속적으로, 생명의 파워를 준다.

선교역사적으로 OMS와 KEHC가 ‘자생론’으로 서운해지기도 하였었다.

*1973-자생 교단론(Self-Established : Churchanity)대두

Prof. Kang expressed Churchanity (Self-Established Denomination) for KEHC from 1973.⁷⁾

*** 지나친 선교 리더십 도전 : It was a challenge of mission leadership.

7) 강근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자생사적 소고”, *교수논총 제 1권*, 부천: 서울신학대학 출판부, 1989:
강근환,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자생사적 소고”, *한국교회사학회지 제 6권*, 1994, 205-242: 서울신학
대학교 교회사 교수 강근환은 독일 *Bonn대학교 신학부*에 1973년 7월 5일 “A Study on Formation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as a Self-Established Denomination”을 발표.

Ch 7 -성령충만하지 못함 ?

Without the Filling with the Holy Spirit ?

7:36-38-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파위가 있다.

생명의 강수로 충만하면 ?

- 1)생명력이 살아난다. 생동성이 생긴다.
 - 2)급물결이 일어난다. 물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치어 살아난다.
 - 3)주변이 아름다워진다.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은 다 강이 있다.
- "성령을 받은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행 1:8).
권능은 영어로는 파워(power), 희랍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1)"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2)"천둥과 번개를 발하는 힘",
3)"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의미한다.

Ch 8 -복음을 버리고 율법을 따라 사역?

Worked by the Law without the Gospel ?

현대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정죄를 잘한다. 그러하기에 용서의 자리를 필요로 한다. 그것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면서.....

어떤 자리가 용서의 자리인가?

첫째, 감람산에 있었습니다(1). 여기에 나온 감람산은 기도의 동산을 의미한다.

둘째, 성전에 있었다.

셋째,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에 있었다.

9절에 보면,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하였다.

Ch 9 -눈치 보는 자 ?

To Read Another's Face without the Entire Dedication ?

자기 아들이 주 예수에 의하여 치유되었는데도 집권층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몸 사리고 예수님이 하시었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당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출교하기로 결의된 상태이었다.

세 종류의 신자들?

첫째, 눈치성 교인들

기존 사회로부터 축출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a)"예수가 귀신들렸다고 비난하고"(8:48),

b)"돌을 들어 치려하고"(8:59),

c)심지어 "예수를 죽이려고"(8:37, 40)까지 하였다.

둘째, 표적 중심의 신자들

a) 이익에 영합하는 교인들이다.

b) 세속적 성공의식에 사로잡힌 교인들이다.

셋째, 순 정품 그리스도인들

순도 100% 신자이다.

a)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당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들이다.

b) 표적과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닌, 어려운 환경과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은 더더욱 아니다.

c)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자신이 당할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다.

d) 요한은 이들을 예수님 때문에 유대 회당으로부터 출교 당한자라고 말하고 있다.

나면서 눈 먼 자가 있었다. 그가 순정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Ch10-진실이 없는 가짜 사역자 신자들 ?

A Faked Pastors and Believers without the Truth ?

양들에게는 선한목자가 필요하다.

☉ 양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

1. 양은 눈이 나빠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양은 시력이 나빠기 때문에 위험이 직면할 때가 많다. 그들 앞에 위험한 낭떠러지나 높이나 가시넝쿨 숲이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무조건 직진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옆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2. 양의 다리가 약하여 잘 넘어지고 당하기만 하기 때문이다.

양은 다리가 약하여 맹수가 오면 급히 도망하지도 못하고 늘 잡혀 먹는다.

3. 양은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들개들은 양들을 교묘하게 골짜기로 몰아세워 죽여 먹는다.

4. 양들이 제 배만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양들은 상당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고 한다. 제 새끼에게도 불어터진 제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간다고 한다. 그러니 목자가 나타나 그 처리를 안 해주면 양은 몸에 병이 걸린다는 것이다.

5. 양들은 흠 뽕이 있어도 둥그렇기에 공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양은 방어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이다. 양들이 잘 속고, 눈도 안 보이고, 다리까지 약하여 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는 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선한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요한복음 10:11)

양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이유가 반드시 있다.

양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는 생존이요 변성이기 때문이다.

목자의 역할이 양을 살린다.

1) 양의 양식을 제공한다.

양은 생체 구조상으로 자존하거나 자립할 수 없는 짐승이다. 꼭 목자가 동반되어야 하는 가축이다. 그것은 바로 양식 때문인 것이다.

요한복음 10:9-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2) 양을 생명으로 인도한다.

또한 양은 단순하게 양식으로만 해결되는 가축이 아니다. 그의 길을 인도해 주어야 하고 몸통이를 보살펴 털을 깎아주어야 하고 마음을 보살펴 주어야 하는 가축인 것이다.

요한복음 10:16-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이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3) 양을 생존하도록 보호한다.

양을 지키는 개를 셰파트(shepherd)라 고 한다. 이 말은 곧 ‘목자’라는 말이다.

요한복음 10:10-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11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15-)

시편 23:4-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가) 우선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선한목자는 양에 앞서 가고, 양의 앞에서 싸운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친다.

나) 다음으로 양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한다.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며 돈으로 계산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러한 선한 목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애정으로 대하고 사랑한 선한 목자이시다.

Ch11-인내 없이 어려움에 좌절하며 사역 ?

Worked to Feel Frustrated without the Patience ?

마리아와 마르다 특히 마르다처럼 주님이 이 어려움을 당장 안 해결해 주신다고 투덜대는 자들이 많다.

OMS의 형제주의(Fraternalism)에서 동반자 리더십 상황화로 : From Fraternalism to Contextualization of Partner Leadership
: 활천- 지상논쟁에서: Discuss in Living Water
Prof. Hunt 교수 힌트- "KEHC는 완전한 자치교회다." : "KEHC is fully self-governing Ch."

OMS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글에서- "OMS가 성결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형제관계"라고. : "OMS relates to KEHC by fraternity."⁸⁾

-인내하는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앉은 모습,'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다- 표현- humility attitude: it was appearance of leadership of a humble missionary.

D 118

Ch12-부활신앙 없이 소망 없이 사역 ?

Worked without the Faith of the Resurrection and Hope ?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경은 열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첫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싹이 돋아난다(요 12:24).

둘째, 그 열매는 땅에 자신을 묻어야 생명력이 자란다.

셋째, 그 열매가 땅 속에서 썩어 깨뜨려져야 생명의 열매가 맺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은 계곡 갈보리 계곡에서 자신을 깨뜨리셨다.

Ch13-예수님의 씻김관계가 없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

Do All Things by Himself without the Relation to Clean of Jesus?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요 13:8)“

대야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야는 먼지가 많은 더러운 곳에서 씻음, 하나 됨, 성결케 하여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할 그릇이다.

① 옷을 세탁할 때 사용하였다.

② 또 손을 씻을 때에 매일 쓰였다.

③ 나아가 발을 씻고 몸을 씻을 때에 사용되었다.

④ 김치를 씻고 얼버무릴 때 쓰인다.

예수님의 씻어주심 위하여?

첫째, 겉옷을 벗으셨다.

둘째,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었다.

셋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다.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존재이다.

8) R. Emy, "Mission in Partnership-Asia," 636.

Ch14-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

The Conviction of Salvation by Jesus Only?

요즈음도 예수님이 그 키가 아닌 것 같이 취급된다.
비즈니스식 마인드가 구원이라고들 행세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인간에게 닥친 미래 근심을 푸는 열쇠 키는 무엇인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섯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믿음의 키-열쇠이다.

둘째는, 소망의 열쇠-키이다.

셋째는, 언약의 열쇠-키이다.

넷째는, 서로 사랑의 열쇠-키이다.

다섯째는, 천국의 열쇠-키이다.

Ch15-교회는 영적 결실이 없어도 모양새 좋은 자들로 ?

Get Only a Style Person without the Spiritual Fruits in the Church ?

요즈음 교회들도 모양만 추구한다. 청빙도, 임직자 선정도....
그 열매가 없어 도끼로 찍어 내어버리라고 하였다.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그 가지는?

1)영경귀와 비슷하다.

엷히고설켜있다.

다른 식물들을 못살게 군다.

2)반듯한 것이 없다.

그 심성이 뒤틀린 모습이다.

3)기둥감으로는 생각조차 못한다.

포도나무 집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4)창작품으로도 쓰임 받지 못한다.

내구성이 완벽하여 그것을 이용한 품격 있는 예술품을 만들 수가 없다.

5)그 잎은 있는가 하더니 없어지고 다 떨어진다.

포도나무 잎으로 자랑할 수 없다.

6)오직 돌보아 주어야만 열매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과실나무인 것이다. 돌보아 주지 않으면 거의 고사상태에 직면할 뿐이다.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 뿐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그 열매로만 말하는 것이다.

Ch16-성령의 가르쳐 주심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다 ?

Know everything without the teaching of the Holy Spirit ?

근래에 교회 안의 철학화 현상 이것이 지나자, 무대식 현상이 등장하여
스탠드바 현상이 나타났고, 성스러운 강단이 다단계 성공신화 간증으로
치달다가 기독교의 공허가 사역자들의 힘을 빼고 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없는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계시적 메시지는 힘을 잃었는가?

성령의 알게 하시는 역사는 없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양식을 섭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운 시대이다.

성 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라.

하나님의 깊은 것 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말씀 깊이 파기 이것이 필요하다.

Ch17-교회의 하나됨 없이 분쟁 ?

Split without the Union of the Church ?

지금 성결교회 까지도 분열적으로 나타난다.
체육선교회, 산악선교회, 충청, 호남....
과거에

Progressives 진보진영에서:

1946. 9. 3- 조선기독교연합회(NCC) 창설
-진보주의적 진영 적극가담, 제 3대 회장: 박현명목사 선출

Conservatives 보수진영에서:

1951-유엔 한국 사무처 및 OMS 통해 한국동란 구호물자 보내온
복음동지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NAE)와 접촉,
1955-이명직 목사 외11인의 제안 교단적 가입

OMS-6. 19. 1960- NCC 의혹- 탈퇴: OMS left NCC on June 19, 1960.

제 16회 총회측-8. 1960-서면으로 투표-양 기관 탈퇴.

: The 16th General Assembly voted for the paper in August 1960, and let two institution withdraw.

그 후 OMS- 제16회 총회 측 지지 1960년 12월-보수동지회-합동 특별총회

1965년 교단 합동에는

OMS의 지원 크게 작용:

에드윈 길보른-합동 계획으로 정상적인 예산외에 특별원조 : E. Kilbourne did special aids as a joint plan in addition to the normal budget.⁹⁾

Ch18-큰 자들이 더 예수에 대한 신앙이 없이 ?

Big One Worked to Be More Tendency without the Faith of Jesus ?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분열시대에

성결교 보수주의자들도

맥킨타이어(John McIntire)의 국제보수주의교회협의회(ICCC)에 가입,

그 이유가 35,000불 지원 받음.

지도자들은 명예박사 받고,

3명 유학 지원.

In that assembly, joined in ICCC of John McIntire and got supported with \$35,000.00.

Its leaders received a Doctor of Divinity and three people were sent for the study abroad.

결국은 분열 가속화-예성(Yesung)=/ 기성(Kysung)

Ch19-헌신 없이 취하려고

Get Something without the Entire Devotion in the Church ?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피와 물까지** 다 내어주시었다고.

그만큼 목회적인 역사를 지닌 시대에 교회 안에 세속성이 판치고 있었고,

이권 사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도

핏물은 예수님의 자비의 사랑(charity)을 말해 준다.

곧 하나 더 주신 사랑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까지도 우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더 쏟아** 주셨다. 이미 목숨을 잃고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주시었다.

9) 선교백서, 40

겉옷 교인이 아니라 속옷 신자가 있다.

1.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지킨다.
 2. 이들은 믿음의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다.
 3. 그 몸에서 나오는 모든 땀들을 묻어낸다. 교회의 어려운 일들,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
- 고전 4:9-구경거리가 되었다. 13-만물의 찌꺼같이 되었다.
4. 가장 밀착하여 그 몸을 보호해 준다.
 5. 찬 바람을 최종적으로 막아준다.
 6. 그 몸을 가장 부드럽게 해 준다.
- 진짜 부자들은 비싼 속옷을 입는다고 한다.

Ch20-부활하신 예수의 축복을 지나치고 의심 ?

Have Doubt without the Blessings of the Resurrected Jesus ?

은혜 현장에 없는 교회 사역자들이 상상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 한다.
사도인 도마가 그러하였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다섯 가지의 은총이 있다.
첫째, 평강의 복을 주셨다(요 20:19, 21, 26).
둘째,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21).
셋째, 성령을 주셨다(22).
넷째, 사죄권을 주셨다(23).
다섯째,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27).

Ch21-차세대에게 '이양'하려 하지 않고 움켜쥐려는 ?

Grasp without the Transferring to the Second Generations ?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나?
다 움켜쥐려는 것이었나?
이득이 된다면 다? 세습이라도 시키면서....

일대일 신앙관계는 '이양'도 가능케 한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증진에서 풀어가는 신앙이다(20-21절).
둘째로, 오직 주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이다(19, 22절).
셋째로, 오직 말씀 만으로의 신앙이다(21-23절).

A. 십자군전도대 역사 속의 동역 리더십 : Partner Leadership in the History of ECCE - Every Creature Crusade Evangelism /1950:

Every Community for Christ /2004

1. OMS 1930년대- 레티(Planter Missionary Lettie) 선교사 시작
2. OMS 1953년 선교사들 다시 입국(After Reentry) 후 재개- KEHC위한 4개 전도대 조직

: Organized 4 Evangelism Band

3. 1973년 9월 29일-스탠리 템(W. Stanly Tem) - 선교헌금 \$600,000,000.00

-KEHC의 교회개척과 전도사역: Ch Planting & Evangelism Ministry for KEHC

-십자군전도대(ECCE)부활(Reviving)

D116

B. 형제주의(Fraternality)에서 동반자 리더십 상황화 : From Fraternality to Contextualization of Partner Leadership - 활천- 지상논쟁: Discuss in Living Water.

Prof. Hunt 교수 힌트-"KEHC는 완전한 자치교회다.": "KEHC is fully self-governing Ch."

OMS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의 글- "OMS가 성결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형제관계"라고. "OMS relates to KEHC by fraternity."¹⁰⁾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앉은 모습, 섬김의 준비가 되어 있다- 표현- humility

attitude: it was appearance of leadership of a humble missionary. D 118

이 이후 서울신대 신학교 이양함

1974년의 재흥 제 29회 총회 때부터 이사 15명 =KEHC: 8명, OMS: 7명,

1982년부터 OMS: 2명으로 축소,

지금은 KEHC 이사만으로만구성

그리고

C. OMS는 다시 KEHC와 세계 선교라는 지상명령을 함께 협력 선교(Co-operative Mission)하기로-1992. 6. 4. 협정¹¹⁾

: OMS established the agreement on June 4, 1992 for accomplishing the world mission more efficiently with KEHC.

리더십 이양 갈등을 겪으면서도 지상최대의 과제인 선교명령 수행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성육신적으로 협력함 :

even though OMS and KEHC had conflicts of leadership transferring, they recognized performing the great task in the world, mission command, as a top priority.

III. 핏물복음 성결인 스타일 이루기:

To Achieve the Gospel of the Blood and the Water SeongGyeolin Style

요 JN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

34 Instead, one of the soldiers pierced Jesus' side with a spear, bringing a sudden flow of blood and water.

35 The man who saw it has given testimony, and his testimony is true. He knows that he tells the truth, and he testifies so that you also may believe.

우리 안에 '피와 물'을 다 쏟은 개척자들이 있다 :

There are planters with the blood and water in us.

1. 리더십 상황화 연구 핵심들:

The Core Studies on Leadership Contextualization

적용 리더십 모델: Leadership Model-Jesus의 리더십: Leadership of Jesus

a. MK 10: 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b. LK 22: 29-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I confer on you a kingdom, just as my Father conferred one on me."

c. JN 21:15~17-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Jesus commissioning for feeding God's sheep

지킨 것- 섬김 리더십의 종결

The best result of servant leade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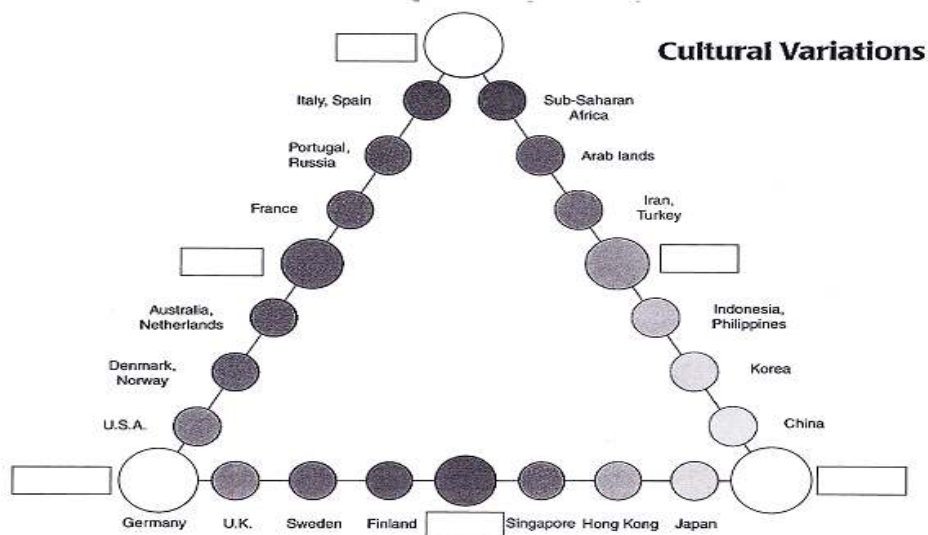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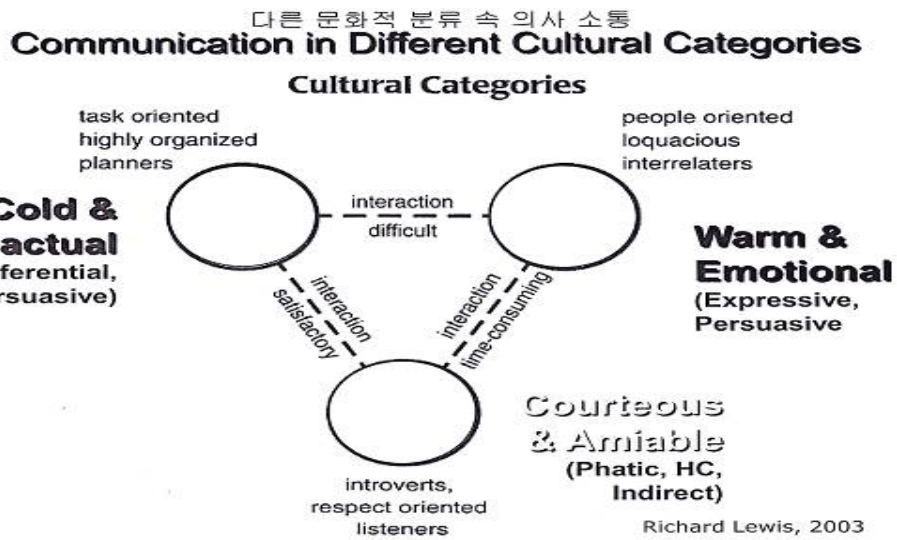
91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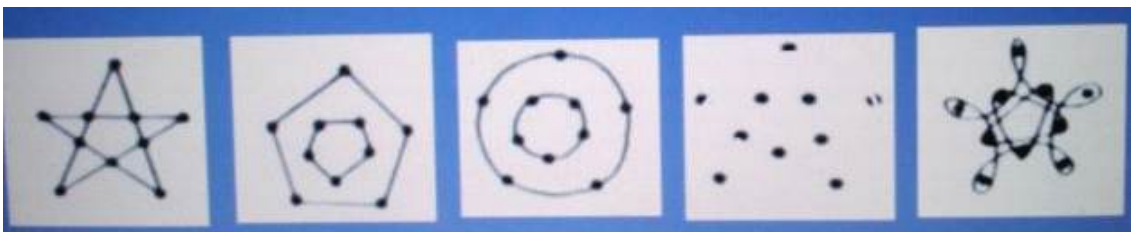
10) R. Emy, "Mission in Partnership-Asia," 636.

11) J. B. 크라우스, "OMS 주한 선교회 보고", 제 47회 총회록, 서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1992, 461.

d. 상대 문화 이해와 의사소통 자세 수정



점을 연결해보자



로키치수치-한국선교사들 중 근면 성실한 선교후보생은 중국으로 파송하여야 할 것이며, 낙천적이며 쾌활한 태도를 가진 선교후보생은 멕시코로 선교지로 선택을 한다면 교차문화에서의 적응력이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사회도 선교적이므로 목회사역도 아주 겸손한 이해력 사역이 필요하다.

Instrumental Values Ranking 수단적 가치 순위			
Rank	Mexico	China	Difference
1	D	C	A=17 (야망)
2	A	L	B=3 (넓은 마음)
3	G	Q	C=12 (유능함)
4	N	I	D=12 (쾌활함)
5	O	O	E=4 (깨끗함)
6	P	S	F=9 (용기있는)
7	T	H	G=12 (용서하는)
8	S	P	H=9 (도움이 되는)
9	B	R	I=8 (상상력)
10	E	M	J=1 (정직)
11	F	N	K=1 (독립적인)
12	I	B	L=12 (지적)
13	C	D	M=7 (논리적)
14	L	E	N=7 (사랑스러운)
15	R	G	O=0 (순종적인)
16	H	T	P=2 (겸손한)
17	J	K	Q=17 (책임감있는)
18	K	J	R=? (자기통제)
19	R	A	S=2 (충직한)
20	Q	F	T=9 (낙관적인)

2. 상황화하신 예수의 선교 리더십 이해 :

Understanding on Contextualization of Mission Leadership That Jesus Adapted on

*By 링엔펠터(Sherwood G. Lingenfelter)-

-선교 지도력 이양 상황화 언급.

힘을 나누는 지도력 정의- Sharing Power Leadership' Definition

“힘과 책임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위임받은 일을 하도록 풀어주는 지도력”

: power sharing leadership is sharing power and responsibility to all people and letting them do entrusted task.

D 92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6 리더십 프레임-

1봉사,

2사랑,

3겸손,

4고난,

5구속의 프레임,¹²⁾

그리고 6위임(이양)까지 :

6 kinds of Frame Leadership of Jesus :

1. Serve, 2. Love, 3. Humility, 4. Suffering,

5. Redemption, 6. Transferring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위임(이양) 후 승천.

-진실로 섬긴 자의 모습의 표지: Ascendance After Transferring -Sign of Serving

12) Hoi Chang Kim, "Five Frames of Leadership of Jesus Christ, the Leader as a Servant", *Theology and Mission Vol. 36*,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2010, 163-195.

ex) OMS 개척자 E. A. 길보른(Kilbourne, Ernest Albert)의 일기에 보면,

1865년 캐나다출생,
1902년 일본선교 시작, 1905년-OMS 조직
1921년 3월부터 OMS 한국 감독-'조선예수교 OMS 성결교회' 교회 조직.
기관지 '활천'을 창간(1922)- 초대 사장 - 교육과 문서 선교에 헌신
카우만 총재 별세(1924)로 후임 총재
LA에서 1928년 4월 15일 64세 별세.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수백 만금의 돈을 출납하였으나,
나의 소유는 송곳 한 개 박을 땅이 없고, 집도 없고, 화려한 가구도 없고, 생활비로 쓰다가 남은 돈 60\$ 밖에 없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13)
OMS 선교지도력은 100년이 넘도록 이런 것이 개척자들 정신에 있었다.

IV. 나가면서

그리스도인 성결인은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할 때이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요한이 표현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 세대의 문화를 입으셨다는 뜻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1:14). 사도요한은 사람이 되셨다는 말씀 대신에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당시에 '영'만을 중시하던 영지주의에 대비한 선교적 언어 사용이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은 예수는 도깨비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진짜 몸을 입으신 사람이 되셨고, 육신이 되셨음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표현을 실감나게 기록하였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에서도 강하였다.

요 19:28 -"내가 목마르다."

요 19:34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은 소위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을 때 믿게 된다는 것이다. 나와 상관있어야 믿게 된다.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님이다.

요 1: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1.예수는 말씀으로서 천지창조자시요, 계시자이시다.

2. 예수는 육신이라는 문화를 입고 참 빛으로 오셨다.

우리의 타입은 ?

한국어로는 ?

‘성결인’

영어로는 ? What ??

Baptist? (세례를 주는 사람)

Or Presbyterian? (장로제 주의자)

Or Methodist? (감리교 신자)

Or Quaker (-ess)? : (the Society of Friends) :

창시자인 영국인 George Fox (17세기)가 "to quake at the word of the Lord" (주님의 말씀에 떨다) 라고 한데서 어떤 판사가 붙인 호칭

Illuminati (눈 : 다신의 신 호루스 신, 인어: 다곤 점김이)

1) *우리는 ??? Wesleyan?? (Wesley의 신봉자)

OMSian??? Holian Holist?? ? 과제……

2) * OMS, KEHC, KECA 삼각 삼중 파트너십 발전할 때이다.

The End

13) <http://tv.juan.or.kr/faith/s03.asp?sid=4793&find=&sel=&gotopage=7> 주안장로교회 홈페이지에서.

강사: Kim, Hoi Chang

Education

B. A. in Theology from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orea. 1980
M. A. in Theology from Graduate School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orea. 1983
D. Min Completion from the School of Ministr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orea. 1995
D. Min., from 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CA, USA. 1997
D. Min., from Providence Theological Seminary, Manitoba, Canada. 1998
D. Miss., from Grace Theological Seminary, IN, USA. 2012

Philosophy of Teaching

I try to spread the Word with the Spirituality of the Lord Jesus Christ in the world with different cultures. The purpose of my seminary teaching is to help my students study more on the powerful word of God and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cultural anthropology. I'd like to assist my students to apply the knowledge of wisdom to the multi-cultural. This is my philosophical concept in Seminary education, based on the missiological approach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Careers

Present- Senior Pastor of New Bible Church in Los Angeles (Planted 2006, KECA), USA.
Present- President of Veteran Officer's Christian Union of Korea in So. California, USA. 1. 2011-12. 2012
Present- Superintendent of Los Angeles District Area, KECA, USA. 2. 2012-2012. 1.
Present- Adjunct Professor of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lifornia, USA. 1. 2012-
Present- Professor of Ezra Biblical College, Los Angeles, California, USA. 8. 2012-
S. Pastor of Boston Evangelical Church (KECA), MA, USA. 4. 2001-10. 2004
S. Pastor of Gilgal Church (Planted) (KEHC), Seoul, Korea. 7. 1988-4. 2001
Superintendent of East District Area, KECA, USA. 2. 2003-2. 2004
President of the Korean Clergy Association of New England, USA. 4. 2002-4. 2003
General Secretary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New England, USA. 5. 2003-5. 2004
Acting Professor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Korea. 3. 1999 - 3. 2001
Faculty Professor & Board Member of Moscow Evangelical Holiness Theological Seminary (in KEHC OMC), Russia. 1996-1999
Chaplain (Officer) of Republic of Korea Navy and Marine Corps, Korea. 4. 1983-7. 1988

Publication

1. Apostle Spirituality- Established Leadership of Mission(사도영성), 2007.
2. Mother Spirituality(어머니영성), 2006.
3. Building Up Father Spirituality- Faith of Stepping Stone(징검다리신앙), 2006.
4. Trends of Theology of Mission(선교신학 흐름), 2005.
5. Analysis of Person's Spirituality of Genesis(창세기인물영성분석), 2005.
6. The Power Mission of a Chaplain Kim in the Korean Marine Corps(해병대와 파워미션), 2000.
7. A History and Mission of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성결교회와 선교), 1999.
8. The Co-operative Mission Plan for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s(21세기선교전략방향), 1998.
9. The City of God, The Earthly City, And The Church in *St., Augustine's City of God*(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 분석), 1998.

Article

10. "길갈교회 개척목회와 선교지향적 목회",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활천사 엮음,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9. (p. 275-288)
11. "성결교단과 개교회선교의 실제", [선교자료집] 기성선교부 편, 1994. (p. 52-63)
12. "나의제언-도시 미자립 교회를 살리자(상, 중, 하)", [한국성결신문] 1993. 11. (10, 17, 24일)
13. "창세기인물영성큐티", [아침향기], 2007년 4-6월호 게재-미주 큐티 경건서적
14. "Five Frames of Leadership of Jesus Christ", *신학과 선교* 36집,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사, 2010.

Thesis

15. Kim, Hoi Chang, Dissertation Title: **A Study of the Strategic Mission Policy for the Overseas Mission of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In Relationship to Contextualization of OMS Mission Leadership.** (p.247)
16. Kim, Hoi Chang, Dissertation Titl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of God and the Church in *St. Augustine's City of God*.** (p.233)
17. Kim, Hoi Chang, Dissertation Title: **A Study of the Co-operative Mission Plan for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s in the Korea Evangelical Holiness Denomination and Its Local Churches.** (p.250)
18. 김희창, Thesis Title : **St. Augustine의 교회관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아래 점을 자기 생각대로 연결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좋아하는
어떤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